

| | | | | | |
|--|------------------------------|--|---------------|------|----|
| I-B-2 | | | | | |
| 제목 | 국문 |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 영문 |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among home-based Elders | | | |
| 저자 및 소속 | 국문 | 장세진, 안양희 ¹ , 최균 ² , 현숙정, 김기경 ¹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¹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 | | | |
| | 영문 | ChangSeiJin, AhnYangHeui ¹ , ChoiGyun ² , HyunSukJung, KimKiKyong ¹ Dep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Dep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¹ ,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² | | | |
| 분야 | 보건관리 [노인보건] | 발표자 | 현숙정 [일반회원] | 발표형식 | 구연 |
| 진행상황 |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2년 12월 31일 | | | | |
| <p>1. 목적</p> <p>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전체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특히 가족과 생활을 하지 않는 독거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의 문제는 주요한 보건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p> <p>2. 방법</p> <p>강원도 H군 지역에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수 97명(남자 10명, 여자 8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흡연, 음주여부, 생활비 출처 등), 건강상태, 보행능력, 일상수행능력, 인지수준, 정서상태(우울), 영양상태, 사회적지지, 건강인지수준 그리고 삶의 질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중 인지수준의 측정은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MMSE-K를, 정서상태는 15개 문항의 노인우울척도(GDS), 그리고 삶의 질은 노유자(1988)의 15개 문항의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측정척도들은 연구팀에 의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0.8437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사정하였다.</p> <p>3. 결과</p> <p>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p> <p>분석대상 총수는 97명으로 이 중 남자가 10명, 여자가 87명으로 약 90%가 여자였으며, 연령은 평균 75.9세(표준편차 6.7세)였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인은 71명이었다. 한달 평균 생활비는 약 17만원이었고, 용돈은 19만원이 지출된다고 하였으며, 생활비와 용돈의 출처는 모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에 대부분(생활비 92%, 용돈 79%) 의존하고 있었다.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생활비의 경우 1%, 용돈의 경우 2%로 가족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낮았다.</p> <p>나. 대상자의 삶의 질 비교(단일변량분석)</p> <p>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하여 신체상태, 관계형성, 경제생활, 정서상태, 환경, 자아존중의 6개 측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 총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성별, 가족유무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우울수준, 건강인지수준, 건강에 대한 걱정도, 사회적 지지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수준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건강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p> | | | | | |

그룹이 하는 그룹보다 삶의 질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 대상자의 삶의 질 다중회귀분석

삶의 질에 미치는 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연령, 가족유무, 보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신검사 점수, 심리상태, 식이상태, 건강인지수준, 사회적지지, 건강에 대한 걱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위의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의 변량중 50.0%를 설명할 수 있었다.

4. 고찰

노인들은 점차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상실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적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 기관의 지원과 일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